유력 대선 후보 탈핵 정책 기조 후퇴 '심각'

탈핵대선연대, 후보 7명 질의

李 · 尹, 탈핵 정책 반대 명확
불교계 일관된 탈핵입장 견지
"안전한 세상 위한 변화 절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2탈핵대선연대가 1월 28일 7개 정당의 20대 대선후보 7명에게 탈핵 관련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서 탈핵 정책이 심각한 후퇴 현상을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탈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 유보적 입장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불교계는 일관되게 탈핵과 원자력 발전 개선에 대해 지지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탈핵대선연대가 질의서를 보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진보당 김재연, 기본소득당 오준호, 새로운 물결당 김동연 등 7명이다. 이 중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를 제외한 5명이 입장을 밝혔다. 주요 질의 내용은 △신규핵발전소인 신한울 3 · 4호기 백지화 △소형모듈원자로인 SMR 연구개발 중단 △원전 수명연장 금지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세 가지다. 답변 결과 후보들은 각자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윤석열 후보는 세 질문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상정, 김재연, 오준호 후보는 탈핵에 명확히 동의했다.

윤석열 후보는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자산으로서 원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소형원자로 연구개발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원전 수명연장 금지에 대해서도 수명 자체보다는 안전 특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일관되게 위험성과 핵발전소 퇴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022탈핵대선연대가 7개 정당 20대 대선후보 7명에게 탈핵 관련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서 탈핵 정책이 심각한 후퇴 현상을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탈핵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원전 수명연장 금지는 동의한 반면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와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중단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신규핵발전소 신한울 3 · 4호기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를 마친 상태"라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표했다.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탈핵에 완전히 동의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질의를 주도한 탈핵대선연대는 "사실상 유력 대선 후보들의 탈핵정책이 후퇴한 것"이라며 후보들 답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특히 거대 양당 후보가 신규 핵발전 사업에 대해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탈핵 기조 후퇴는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이 1월 12일 주요 대선 후보 4명에게 보낸 기후 에너지 환경분야 정책 제안 질의 답변에서도 이재명 · 심상정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에 찬성했지만, 윤석열 · 안철수 후보는 반대했다. 또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1월 27일 공개한 '20대 대선 기후정책 질의' 결과 이재명 후보는 탈핵 기조 지속과 석탄 화력 건설 중단, 신공항 백지화 등에 모두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안철수 후보는 핵발전 이용 의지가 강력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세 가지 정책 기조에 대해 모두 적극 찬성했다.

불교계는 그동안 탈핵과 원전확대 저지 활동을 이어온 만큼, 이번 답변 내용 관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은 수년전부터 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탈핵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이끄는 법석을 수차례 열어왔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 방안도 고민하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해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2016년 경주 지진피해 이후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불교생명윤리협회 등 불교계 단체들도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원하며 도보순례를 이어가는 등 탈핵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핵 발전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탈핵 흐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방향에서도 역행하는 행위"라며 "탈핵을 정책으로 삼지 않는 후보들로 인해 그동안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를 이뤄왔던 탈핵 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반대로 선회될까 우려스럽다. 후보들의 정책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탈핵대선연대는 65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합단체다. 불교계에서는 불교환경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불자선수 선전 기대

중국 베이징에서 펼쳐지고 있는 동계 올림픽에서 불자선수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팀킴'으로 불리는 여자 컬링 대표팀은 2월 10일 캐나다와 첫 경기를 치뤘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불자들로 특히 불심이 돈독한 김은정 선수가 이끌고 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2018년에 이어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도 의성 고운사에서 명상을 통한 정신력 강화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 스피드스케이팅 1500m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베이징올림픽 1500m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한 김민석 선수는 독실한 불자 아버지의 기원 속에 선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금메달 획득의 기대를 모았던 불자 이상호 선수는 예선 1위로 16강에 올랐지만, 소치올림픽 2관왕 와일드 선수에게 일격을 당해 4강 진출에 실패, 5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스노보드 여자 평행대회전에 출전한 정해림 선수도 예선 1차에서 7위를 기록했지만 예전 종합 18위에 올라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노덕현 기자

여수보호소 참사 15주기…"변한건 없다"

공동행동, 2월 10일 기자회견
"보호소 인권침해 방지책 시급"
책임자 처벌 · 당국 사과 촉구

"철창 문을 열어라! 더 이상 가두지 마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이하 여수참사) 15주기를 앞두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이 동참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소 공동행동)가 2월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보호소 구금대안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수 참사는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소호에서 화재가 발생, 구금됐던 55명의 외국인 가운데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참사다.

이날 외국인보호소 공동행동은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도주 방지를 우선하느라 화재가 나도 철창을 열지 않았던 당시 상황은 너무도 끔찍하다"며 "15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는 어떠하냐. 법무부의 대책은 화재예방과 경비강화에만 맞춰져있다"고 개탄했다.



외국인 보호소 공동행동은 2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금대안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가혹행위(소위 '새우꺾기')를 언급했다. 이들은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손발을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린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6일과 12월 3일 두차례에 걸쳐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 보호해제 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자신들이 인권침해를 한 외국인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탄식했다.

이어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가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화성보호소에서 발생한 고문 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지원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공론화 △책임자 처벌과 관계 당국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재발방지와 보호소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이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 인근까지 약 1km를 행진하며 외국인보호소 내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했다.

임은호 기자

軍불자장병 전역 후 관리 본격화 된다

군종교구 · 대불청, 2월 11일 軍불자장병 전역포교 협약

年 10만 명 규모 청년 수계
군 불자 장병 전역 후 관리
사찰 · 청년회 등 연결 의미

수계 군장병들의 전역 후 신행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포교 활동이 강화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일)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는 2월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군종특별교구 파견근무자 임명 및 청년포교 · 전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제대한 불자장병과 입대 청년불자들이 신행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군종특별교구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군 수계 불자의 데이터를 대불청에 공유하고, 대불청은 제대 군장병들이 불교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사찰과 단체, 청년회 및 불교학생회 등에 인연을 맺어준다.

이와 함께 대불청 차원에서 이들이 각 사찰청년회와 대학 불교학생회에서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또 청년들에게 맞는 군포교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군종교구를 지원한다.

2018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청년포교 · 전법사업' 업무협약을 맺게 됐고, 이에 따라 군 불자장병들의 데이터를 받기로 했지만, 개인정보 관리 강화와 군내 종교자유 방침 강화에 따라 활동은 미뤄져왔다. 이런 와중에 개인정보 동의를 거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실질적인 포교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장정화 대불청 회장은 "대불청 차원에서는 미래세대위원회를 구성해 제대 군장병을 대상으로 대불청 입회 권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수계장병 전역 관리에 대한 불교계 목소리가 높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군내 종교중립 문제로 현실상 어려웠다. 협약을 통해 불교 장병들이 제대 후 신행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은 "군포교가 청년포교의 산실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정작 불자장병들의 전역 후 신행활동 등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과 파견근무를 통해 문제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과과정

학 과		교육내용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Ⅰ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1시 ~ 5시	○○	조인각 스님
2학년	상주권공 Ⅱ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1시 ~ 5시	/	이기봉 스님
3학년	각배	각배 과정	목	오후1시 ~ 5시	편입생 약간명	마일운 스님
4학년	영산	영산 과정	금	오후1시 ~ 5시	/	김태호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 ~ 4시	/	심만춘 스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2년 2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2년 3월 첫째주 월요일 ※개강 이후 3월중 입학신청 가능
▷ 전 형 료 : 50,000원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전화 접수 및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①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②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조고담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